



성장통 2

듀라 렉스, 세드 렉스

Rose Marielle Bagkus (인턴기자)

[편집자의 변]
 아래 글은 한국에 유학을 와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필리핀 대학원생의 기고입니다. 저자는 생존을 위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필리핀 아동들의 입장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급격히 하향시키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법만능주의에 대한 경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법이 과연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Dura lex, sed lex”는 대략 “법은 잔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법이다.”라는 뜻의 라틴어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법이란 사람이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해서 비록 지나치고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자신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엄격한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필리핀에서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마약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가 5,000 명¹으로 늘어남에 따라 처벌과 형사 책임에 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앞의 사상자 수치가 독자들에게엔 무시무시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국가와 지방 정부들이 범죄자들을 체포, 구금하는데에 거듭 성공하였고 범죄로 가득 찬 거리를 효과적으로 없애, 살기에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는데 한 몫 했습니다.

올해, 필리핀 입법부는 보다 안전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새로운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인해 필리핀 어린이들 중에서도 특히 법에 저촉

1 [편집자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재판 없이 사살하는 '초법적 처형'으로 대략 5,000명의 사상자를 초래했다.

되는 어린이들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초, 형사 책임 연령²을 15세에서 9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고, 그 법안은 현재 필리핀 상원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적정 형사책임 연령을 12세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9세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와 지방 당국이 필리핀 내 “Bahay Pag-Asa(House of Hope)” 재활 센터에서 아동 구금을 감당할 구조적 및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더 깊은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수의 아동 인권 보호단체들은 이 법안 제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유니세프는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이는 “아동 폭력 행위”라고 규정하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니세프는 필리핀 정부에 형사책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을 중단할 것과, 2006년 청소년 사법 및 복지법 개정에서 더 집중할 것을 촉구하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청소년 사법 및 복지법 개정안은 이미 10년 전에 성문화 되었지만, 필리핀에서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못한 부분들이 개정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난 몇년간, Bahay Pag-Asa와 같은 수용시설에 분배된 예산이 실제로는 집행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수용시설의 낙후 및 재활센터 인구과잉 등을 초래했습니다. 청소년 사법 및 복지센터의 디렉터의 말에 따르면, 114여개로 계획되었던 재활센터 설립 중 55개의 재활센터만이

설립되었고, 각 재활센터를 설립하는 데에 천 5백만 페소(대략 한화 3억2천6백만원)가 소비되었습니다. 이 문제 법안의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율 해소를 위해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형사책임 연령을 최소화하는 것은 필리핀 어린이들을 돕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의 어린이들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범죄자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신디케이트 및 카르텔에 의해 불법 노동을 강요 받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절도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많은 아동 권리 단체들은 형사책임 연령 하향 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면서 입법자들이 마약 전쟁의 최대 피해자인 어린이들을 돕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형사책임연령을 낮추기만 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이 되는 큰 그림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을 격리 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어린 청소년에게 더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새로운 법령을 도입하기 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법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상한대로, 이 일들로 인해 많은 의문

² [편집자주] ‘형사 책임 연령’ 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점들이 생겨났고 필리핀 국민들은 정의, 가족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진국에서 막대하게 커져만 가는 빈곤의 새로운 측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빈곤은 순수한 젊은이들이 법에 저촉되는 삶을 살도록 강요합니다. 사소한 경범죄로 체포된 많은 청소년들의 경우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나 학대 가정에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결국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법제정만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아이를 최고의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동 복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아이의 성장 환경임을 부정 할 수 없습니다. 빈곤한 필리핀 아동의 성장 환경은 부모의 실업, 불안정한 가정, 교육 및 보건에 대한 낮은 순위 매김의 경우가 많습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필리핀의 부모들은 가정교육에 있어서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결정에 따라 살아 가도록 엄격한 감독보다는 느슨한 지도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필리핀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의 선택이 성인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자녀들이 자신의 운명을 알아서 스스로 찾거나 쫓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필리핀 가정들은 고갈된 재정 상태와 사회 복지의 부족으로 빈곤과

싸우고 있고, 이와 동시에 아이들은 다른 류의 빈곤도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지도와 보호 가운데 살아야 할 아이들이 무책임한 부모의 부수적 피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가장 취약한 상태로 거리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형사책임연령하향법안은 중범죄에 연류된 아이의 부모로 하여금 필수 육아 교육과 카운셀링에 참여하도록 하는 강제 개입 프로그램의 집행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부모들로 하여금 자신이 아이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예방 방법은 어린이가 범법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부모를 먼저 교육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성문화된 법이 실행되어 왔지만, 지금 현재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현존하는 법을 선포하게 다른 법으로 대체하기 보다는 실행 가능한 좋은 법을 상정 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기 보다는 사회 공동체나 지역 당국들이 아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한 아이를 격리 시설에 가두는 것은 쉬운 해결책이긴 하지만, 필리핀 국민과 가정을 더 튼튼하게 하고 공동체를 돕는 것이 필리핀의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최선의 그리고 더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통 ③

계속되는 성장통

윤지희(직장인)

법은 비록 잔인할지라도 여전히 법 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형사 책임 연령을 최소화시키는 법안은 여전히 필리핀 상원에 상정되어 있으며 입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성문화되고 나면, 수천 명의 어린이들은 집에서 쫓겨나 관리가 안된, 수용 포화 상태의 시설에 보내지게 될 것이고, 이들의 미래는 더욱 불명확해 질 것입니다. 재활 센터에서 아이들의 어리석은 행동들이 교정 되기만을 바라면서, 아이들을 시설에서 썩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 일까요? 아니면 모든 시민들을 좋은 부모로 만들어서 내일의 아이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은 일 일까요?

